

‘정보공개 반발’ 광주 에너지밸리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2015년 산단 조성 결정, 2017년 GB 해제...56% 공정률 조사VS 신상 공개 충돌...“철저 조사해야” 시의원 격력도 “광주시가 직접 나서 의혹 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원이 해당 산단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대촌동 일원 94만4000㎡(28만평) 규모의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사업주체로 광주도시공사 가 시행자인 이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착공해 지난 4월 현재 56%공정률에 4.5%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산단은 지난 2015년 4월 남구 도시점단산단 조성 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그해 11월 광주도시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시행에 이어 2016년 10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신청 이후 2017년 6월 GB가 해제되고 12월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LH 직원의 투기의혹으로 광주 산정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개발 사업지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A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 조사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A의원은 지난달 5일 시에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지번과 지목, 소유자, 면적 등의 필지사항을 요구,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 14일 광주 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소속, 직급, 주소 등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A의원은 “아직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남구 에너지밸리의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 이미 조사가 상당히 이뤄진 산정지구가 공무원 사이에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정보공개가 어려운 경우 성

명을 제외하고 소속, 직급, 주소가 들어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비공개 승부를 요구했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등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청 여러 부서에서 해당 의원 보좌진에게 “개인정보는 줄 수 없다”며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해당의원을 성토했다는 글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의 투기의혹 조사와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의원의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요구에 시청 안팎이 시끄러하다는 보도에 ‘사랑방 뉴스룸’ 네티즌들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은 “전수조사찬성한다. 해당 시의원 응원한다”, “내부정보 이용한 공무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평동2차 3차까지 확대하라”는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자료공개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가 직접 나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상 규모는 시를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23곳의 직원 6500여 명이다. 기동취재본부



‘반대와 찬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아산시 배방읍 이장협의회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오른쪽)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 쌍둥이 탄생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한 쌍이 처음으로 태어났다. 동물원 측은 이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태어난지 두 달이 지나 일반에 공개했다. 긴 꼬리에 검은 줄무늬 링을 여러 개 가진 알락꼬리여우원숭이는 호랑꼬리여우원숭이라고 불리며, 아프리카 대륙 옆의 키텐란 섬 마다가스카르에만 사는 고유종이다. 영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 섬을 대표하는 수호동물로 묘사된 바 있다. 아침에 무리가 모여 일제히 팔을 벌리고 태양을 향해 일광욕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성격이 온화하고 호기심과 친화력이 뛰어난데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어 한때 무분별한 밀렵에 시달리면서 현재 1급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돼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임진택 소장은 25일 “이번 여우원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진=광주시 제공)

숭이 탄생을 계기로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 멸종해가는 멸종위기종들을 적극 도입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다른 동물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패드립하고 학생에 발길질...’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학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형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전학생 B(10)군에게 C(10)군을 가리키며 “너 C군이란 놀지 마. 나쁜 애야”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5월 교실에서 노

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D(11)양에게 욕설하고 같은 해 6월 학교 복도에서 E(11)군을 혼계하던 중 손으로 어깨를 치고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찬 혐의로도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들에게 ‘부모가 그만 식으로 가르쳤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합창 교향곡 감상 중 계이름을 따라 부르다가 ‘선생님 때문에 연주가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한 학생을 불러내 어깨를 짚으며 ‘참 불쌍하다. 어른들이 말하는 걸 인정할 줄 몰라서 안쓰럽다’고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에 불복, 지난해 3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행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사유와 같은 신체·정서적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잦은 욕설·차별·이간질,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상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유나기자

5·18단체 “옛 광주교도소 터에 초고층 주상복합 안 돼”

민주·인권 기념공원 조성 취지대로 사업 추진해야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옛 광주교도소에 민주·인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애초 취지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체

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5·18 기념 성격으로 시작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5·18단체는 “위탁 사업자인 한국토

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옛 광주교도소 터 개발을 위해 자연 녹지인 토지 형질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부지의 16%가량인 1만 5000㎡에 역사 공원 지정을 취소하고 30층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